

2019년 첫 번째 호 (통권 26호)

별마을 010-1171

(星村, 별성 마을 촌)

향기를 풍다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집
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2019년 "당신의 향기"는?

새로운 마음의 향기
자립에 대해
열심히 준비할 거에요
-윤진규-

성장의 향기
울 한해 더욱더 성장하는
성촌의집 사회복지사
되고 싶습니다.
-최기열-

건강의 향기
건강한 삶을 살 거에요
-이영우-

다정함의 향기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거에요
-김미정-

소망의 향기
올해는 모두가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현주-

행운의 향기
모두에게 행운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현규-

색의 향기
성촌의집에 어울리는
사회복지사의 색깔을
만들고 싶어요
-이소정-

열정의 향기
일 열심히 다닐 거에요
-장근택, 김미영-

변치 않는 모습의 향기
지금처럼만 같아라
-김봉규-

성촌의집 일년살이

**가치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행복공동체 “성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동복지 “향기나는 성촌”**

가치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성촌의집의 운영가치는 무엇인가로 질문한다.

다만, 무형적인 이러한 이상들이 이용자의 주체적인 삶으로,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장애인거주시설 성촌의집의 존재가 의미있는 운영으로, 실천이 되어 행복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본과 원칙은 무엇인가?

성촌의집의 기본과 원칙

이용자들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기본과 원칙

성촌의집을 이루고 있는 직원들, 조직들의 기본과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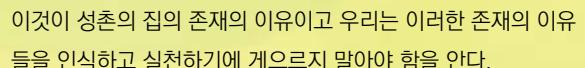
2019년 성촌의집의 일년살이 주 키워드는 “향기”이다.

“향기”를 내는 이용자
“향기”를 내는 직원
“향기”를 내는 조직

어떻게 하면 각자 톱니바퀴처럼 얹히고 설킨 우리의 모양들을 잘 만들어 향기를 낼 수 있을까?

성촌의집의 존재의 이유를 인식하는 것

“이용자 각자의 개인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돋는 것”



이것이 성촌의 집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이유들을 인식하고 실천하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함을 안다.

각자의 위치에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성촌의집의 이용자는 자신들의 삶의 선택과 책임과 의무가 공존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지원과 서비스가 의미없이 지원되지 않기를 스스로 말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성촌의집 직원들은 가치에 대한 성찰을 위한 자조적 학습조직 및 교육을 통해 일함의 의미를 찾아가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거주시설의 현 주소에 대한 정보공유, 거주시설 직원으로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업무, 직장인의 자세 등)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2019년 우리의 일년살이를 평가하면서 각자 위치에서 어떠한 “향기”를 내었는지 좋은 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향기”를 품고 “향기”를 내고자 하는
성촌의집 파이팅**

Let's go Together

장애인인식개선캠페인 & 단편영화제 '같은 눈으로 바라본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촌의집의 유례카 키워드는 바로 '함께 가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 성촌의집은 2018년동안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번째 움직임은 바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성촌의집 이용자분들과 각 학교 방송반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우리의 일상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제로 함께 방송도 진행하고 녹음도 하였답니다.



두번째 움직임은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입니다.

성촌재단 바자회,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활동을 하였고 지역편의시설에도 홍보물을 배포하여 동네주민들이 성촌의집 이용자들이 함께 사는 이웃임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움직임은 단편영화제입니다.

'같은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라는 것을 주제로 성촌의집 이용자분들과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조를 이루고 역할을 정하여 단편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밤에 단편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영화 한편 한편이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메세지를 각자의 마음에 전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성촌의집 역동적인 모습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우리 함께 가요. "Let's go Together !"



2018년
송년행사

지금까지 이런 행사는 없었다.

이곳은 클럽인가 성촌강당인가



비까번쩍하게 꾸미고!



사람들도 왕창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벽에 멋진것도 좀 쑤주자!



화려한 차림속에
거울로 비쳐오는
(Hit it~!)



"빛"과 함께한 2018 송년행사
LED 악세사리로 한껏 꾸민 후 LED 조명에 맞춰 춤과
노래로 한껏 분위기 UP!!
마치 클럽에 온 듯한 PARTY TONIGHT!!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9년에도 반짝반짝 하시길~

설명절

풍성한 설날 잘들 보내셨나요?



매년 찾아오는 설명절. 새해인사를 주고 받으며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원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설명절을 보내기도 하고, 연휴를 맞이하여 지인들과 만나기도 하고, 성촌의집에서 오랜만에 긴 휴식을 만끽하기도 하는 등 별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꽉찬 휴가일정을 가지고 설명절을 보내셨답니다.

성촌의집에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명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가족과 지인에게 새해인사와 반가움, 그리움을 전하는 편지쓰기.

명절분위기를 느끼며, 전, 산적꼬치, 만두 등 설명절 음식만들기 민속놀이에 우리들만의 재미를 더한 미션 윷놀이를 했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독자분들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풍성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별★TALK



유○원님의 환갑 “인생은 60부터”



몇달전부터 준비해 온 유○원님의 환갑잔치

양복도 맞추고 식당도 둘러보고 초대장도 만들고... 넥타이, 와이셔츠, 꽃바구니, 케익, 떡, 과일, 환갑상까지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선물과 축하 노래까지~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원입니다.

저의 환갑잔치에 와서 축하해주신 하늘만나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 권사님과 지인분들을 비롯하여 성촌의집 직원분들과 동료 이용자분들 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촌의집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해피타운에서 성촌의집으로 이사온 이○철, 강○우입니다. 가끔 해피타운에서의 생활이 그리울때도 있지만 성촌의집 가족들과 잘지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직장을 새로 얻어 바쁘게 보내고 있답니다. 성촌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부터 성촌의집과 함께하게 된 이사미입니다.

성촌의집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 이용가족들과 배려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삶의 향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잘 지내보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미 위생원]



sungchon



...

♥ 좋아요 5,566개

sungchon #첫직장 #훈밥 #설렘

직업상담을 마치고, 헌지공예를 배우게 되기까지 설렘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몸은 조금 피곤하고 가족들과 점심식사는 못해도 나는 혼자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한다.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1년이란 기간을 건강하게 다니는게 내 소원이다.

sungchon



...

♥ 좋아요 6,005개

sungchon #면접 #첫출근 #설렘 #나도 직장인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다녀왔다.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를 다니고 싶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O철형 김O경 동생, 김O신 누나와 함께 다녀왔다. 그곳에 가니 공단 직원이 와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2월 1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한다. 열심히 일을 배워야겠다.



sungchon



...

♥ 좋아요 3,585개

sungchon #엄마얼굴 #보고싶었어요 #우리가족 #나의가족 #사랑해요

10대 때 부모님 품을 떠나 인천 낮선 곳, 성촌의집에 보금자리를 틀고 20년 만에 고향을 찾았어요.

나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먼 곳을 복지사님의 도움으로 찾아가는 그 아침의 기분은 위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드릴 새복을 사고, 도자기 공방에서 만든 찻잔 세트를 선물로 준비하며 먼 길을 떠나 도착했어요. 큰절을 드리고 부모님은 조금 늙으셨지만 저를 바라 보시는 시선은 여전하셨어요. 맛있는 밥을 지어먹고 하룻밤을 부모님과 남동생과 보내는 건 꿈만 같았어요.

1년에 한 번은 찾아뵙기로 하고 다시 인천으로 가는 차를 타며 부모님 건강하시길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성촌의집

식당의 하루, 그리고 감사

감사

성촌의집, 이용자들의 식단을 구성하기 전에 메뉴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때는, 이용자가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 계절음식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식당운영에 대한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기도 한다. 각자 개인들의 욕구를 다 반영하여 식단을 구성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용자 각 개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식당이 이용자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시간들이다.

이날도 메뉴위원회 진행은 다르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을 서로 말하고, 영양사인 나는 그 음식들을 받아 적으며,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서로 회의가 진행되어질 무렵.

김○규님이 나에게 영양사님도 먹고 싶은 것을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만 얘기하나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쿵' '감동' '응'?

나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단어들과 감정들이 왔다갔다 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 왜 감동이 되었을까? 별 말도 아닌데 왜 심쿵 했을까? 나는 식사를 당연히 쟁기는 것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성촌의집의 영양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연희라는 개인으로 들여다 봐주고 관심 가져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일상의 감사. 단지, 나는 메뉴위원회라는 사업을 기획하고 결과보고 및 정리하는 단순한 업무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짧은 이 한마디 “영양사님도 먹고 싶은거 얘기 해봐요” 이 말은 다만, 사업이 아니라 일상의 공유였고, 그들에게는 “삶이 될 수 있는 장”

이었다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직원과 이용자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를 어떻게 잘 구성해 볼까에 대한 고민의 장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나 할까.



회상

식사를 다 마친 생활복지사가 조용하지만 감사의 말을 던졌다.
토란국을 먹으면서 울컥 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끓여주신 토란국이 생각나서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감동

식사시간이 종료된 상황, 식당이 조용해진 어느날~

생활복지사와 고○희님이 식당이 내려오셨다. 평소 걷는 것이 불편한 고○희님, 물리치료, 병원진료, 미용실방문등 자신의 주요한 일들외에는 바깥출입이 찾지 않으신 분이 식당에 오셨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고○희님은 한참을 들숨과 날숨을 들이쉬며, 이야기 하셨다. “자....알...먹...었...시....유”

생활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식사후에 바로 이 말을 전하고 싶었으나 바쁘고 분주히 움직이는 식당에서 고○희님은 자신의 말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으셨었던 것, 생활동으로 돌아와 몇 번이고 잘먹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여 전하러 오셨단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던져질 말, 매일 습관적으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말 “잘 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꼭 전해야 한다며 시간을 내서 어려운 발걸음과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그 말 “잘 먹었습니다”

10여년 동안 영양사 일을 하면서 나에게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보통 “맛있었어요” “잘 먹었어요”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누군가에는 향수를 불러 일으켜 줬을 성촌의 식당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누군가에게의 감사의 한마디 잘 먹~었시유~.

고이고이 간직하여 어렵게 표현해준 그 마음이 느껴지는 성촌의 식당.

누군가에게는 사업이 사업으로 끝났을 메뉴위원회.

삶이 되고 일상이 되고 개개인의 존중이 되어 행복과 감동이 있는 성촌식당.

56명의 삶에 묻어나고 한끼 식사가 감동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식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식당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눈에 머문 향기



▲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3일 전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서 겨울이구나 했었는데
금새 따뜻해져서 눈이 다 녹고 이만큼만 살아남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정말로 봄이 오나봐요.

▲ 희망을 오르다



계단은 인생의 고달픔, 힘겨움으로 표현되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계단을 바라봤을 때 올라가고 싶다.
즐겁게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계단위에 올라서면 또 다른 희망과 세계가 펼쳐 질 것 같은
기대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성촌의집 이용 가족분들의 출사 작품입니다. 다음호도 기대 해 주세요.

별마을 메모리즈

★사업평가회



성촌의집에서 2018년 한해동안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용자분들과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용자분들 각자가 참여하였던 사업들에 대한 진행내용과 결과를 보고 들으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019년 개별서비스회의



이용자분들이 성촌의집에서 2019년에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 원가정 가족분들, 원장님과 담당 사회복지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들은 2019년에 주요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이용자자치회 부평구의회 방문



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할까? 이용자자치회의 임원진들이 부평구의회에 이곳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하고 있는지 참관하였습니다. 회의진행과정과 성숙한 회의문화를 보며 이용자자치회의도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됩니다.

★장수마을, 노인요양시설 방문



이용자분들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년기 삶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 장수마을과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직접 같이 있어보면서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서 경험하였습니다.

★겨울 김장



인천농산물주식회사의 후원으로 풍성한 겨울김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3군수 군인장병들의 자원봉사로 평소보다 무려 3시간이나 단축!! 이렇게 잘 만들어진 김치는 김치냉장고와 냉속에 보관되어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방문



인천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지원하는 장애인건강프로젝트로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운동처방을 실시하여 성촌의집 가족 여러분의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분기별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운동실찰을 통하여 전후 결과치를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그 이상의 아름다움

유진기업(유승호 대표)
2018.10.25.(목)



전기오븐 6단 후원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2018.10.26.(금)



생활용품 및 후원금 후원

인천농산물주식회사
2018.11.20.(화)



김장 재료 후원

한국전력공사부평전력지사
2018.12.26.(수)



주식(쌀) 후원

한울타리봉사단
2019. 01. 20(일)



간식 및 세탁용품 후원

건강보험공단인천부평지사
2019. 01.25(금)



주식(쌀) 후원

부평감리교회
2019.01.28(월)



주식(쌀) 후원

김문규후원자
2019.01.29(화)



생활동 도배지 후원

동암신용협동조합
2019. 02.22(금)



주식(쌀) 후원

좋은 친구들

DK도시개발봉사단	상정고 · 인천외고 · 인제고방송반	인천가족공원사업단	별하나봉사단
			
식당 및 시설 환경관리	팟캐스트제작 지원	녹색공원과 옥상공원 수목관리	이용자 한글 교실 지원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제3군수지원사령부 10보급대대	
			
이용자 여가활동 지원	시설 환경관리 및 시설물 관리	이용자 긴장 지원	

늘 아낌없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시는 좋은친구들 여러분 앞으로도
성촌과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행복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요~

자원봉사자 모집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의 희망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성촌의집에서는 장애인의 일상과 함께 추억을 함께 공유 할 좋은친구들을 모집합니다.
개인, 가족, 단체, 동호회, 기업 등 여러 형태로 활동 가능합니다.
함께 희망을 나누고, 일상을 공감할 지역사회의 좋은친구들을 기다립니다.

 성촌의집 : 032-422-0573



행복한동네



성촌의집에서 불과 50m도 안되는 거리 내에는 CU동암제일점 편의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것도 오래, 물건값을 지출하는 시간도 느리고 오래 가끔은 가격을 제대로

지불하지도 못해도 친절한 설명과 기다림으로 성촌이용가족들을 맞이해 주시는 우리동네 단골 편의점.

물건 영수증에 직접 이름을 기입해주시는 친절함까지. 언제가 감사합니다.



점장님의 한마디

장애가 있든 없든 더불어 함께 하며,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자분들과 직원들을 보며 항상 행복을 느낍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행복한 동네
CU동암제일점 이었습니다.

♥ 후원자 명단 (2018.11.01.-2019.02.28.)

+ 신규후원자를 소개합니다 +

개인 : 권혁규, 남동우, 박왕진
단체 : 하나클럽, 한울타리봉사단

+ 비지정후원금

개인 : 강해인, 김기순, 김대식, 김문규, 김영주, 김옥신, 김용애, 김은미, 김인수, 김현경, 김호연, 김현보, 노대용, 박근수, 박경진, 박미정, 박왕진, 박정숙, 변문수, 배수경, 손대원, 신진자, 유계월, 윤재경, 이구형, 이말선, 이미복, 이상진, 이은주, 이준희, 이한희, 이향란, 장연희, 전경재, 정금자, 정민영, 정민호, 정성웅, 정현주, 조광매, 조근태, 조명규, 조성순, 조성숙, 최경자, 최기열, 최새롬, 최성희, 최원준, 최은주, 한선미, 한연숙
단체 : 교촌에프앤비주식회사, 동암교회, 동암신용협동조합, 라성약국, 유진기업, 익산유업, 인천농산물주식회사, 인천중앙교회, 하나클럽

모금함 : 건강길약국, 동암우체국, 성촌의집, 인천상산동우체국, 촌집보쌈, 24시전주콩나물국밥

+ 지정후원금

개인 : 유정운, 이미복, 이은주, 임미정, 태은실

단체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피빈 : 노대용, 다솜, 박명숙, 성우그림, 소요우, 아이리스, 에이취, 이사미, 체르, 파란마음용애, 혜미니, cchcake001, CoffeeHolic, hamas, lilyh73, Ins0322, seongho7670, seven9268, tigger412

+ 후원물품

이용자 식생활개선 6단전기오븐기 지원 : 유진기업

이용자 주부식지원 : 강인성, 권혁규, 김문규, 건강보험공단인천부평지사, 남동우, 동암신용협동조합, 부평감리교회, 이명식(태양봉사단), 인천순복음교회, 장순, 한국전력공사부평지사

이용자 일상용품지원 : 김도환, 아모레퍼시픽, 장순, 한울타리봉사단

이용자 간식지원 : 교촌경인유통, 김현준, 남동우, 오현주, 인천농산물주식회사, 태은실, 한울타리봉사단

이용자 프로그램지원 : 김기순, 남동우, 동그라미봉사단, 인천농산물주식회사, 장순, 최성희, 태은실

이용자 김장재료지원 : 인천농산물주식회사

이용자 차량점검지원 : 시흥현대모터스

이용자 생활실 도배지원 : 김문규

기타물품지원 : 이미복, 이사미

💌 2018년도 세입 · 세출 결산서

세 입			세 출		
항 목	예산액	결산액	항 목	예산액	결산액
임소비용 수입	4,788,000	4,788,000	인건비	1,028,813,000	1,028,813,000
보조금 수입	1,191,210,660	1,191,161,510	업무 추진비	130,000	130,000
후원금 수입	49,283,360	51,758,100	사무 운영비	80,607,505	80,562,565
전입금	12,790,000	12,790,000	시설비	21,605,060	21,605,060
이월금	23,956,835	23,956,835	사업 운영비	100,546,160	100,447,580
잡수입	17,279,754	17,269,783	사업비	39,101,252	39,101,252
합 계	1,299,308,609	1,301,724,228	반환금	45,000	21,187
			차년도 이월금	28,460,632	31,043,584
			합 계	1,299,308,609	1,301,724,228

☎ 자원봉사자 명단 (2018.10.01~2019.03.31)

★ 도란도란 봉사단 - 이용자 공연 지원

김경자(소예), 김봉순, 김학수, 곽영한, 반선희, 박용선, 양우호, 채영근, 하영천, 헌종덕

★ 동그라미 봉사단 - 이용자 프로그램 진행

오현주회장, 나태현, 고은별, 고재훈, 김경숙, 김기복, 김숙영, 김양미, 김인선, 민영희, 방혜원, 이금희, 이정희, 임종휴, 조성빈, 최계한, 최선미, 최태문

★ 반딧불봉사단 - 시설 환경정리 및 시설물 수리

강원희회장, 이동철, 고재기, 김광태, 김나미, 김미숙, 김미원, 김성민, 김순천, 김중식, 남형우, 류기준, 류준식, 류지상, 맹주복, 백화자, 순정희, 양재춘, 이석, 이순호, 이영근, 이애순, 이용현, 이인자, 이정애, 장의영, 정재희, 하남용, 허정철

★ 별하나봉사단 - 이용자 평생교육교실 지원

이은서, 김태일, 성홍규, 이다현

★ 부개3동 보장 협의체 - 시설 및 생활동 환경정리

김정란, 김종숙, 윤승자, 이애순, 정재희

★ 우리들 봉사단 - 이용자 정서지원

정수연, 강건주, 강건희, 김나연, 김민교, 김예은, 유나경, 유현정, 이경민, 이승민, 이은서, 이지원, 정재민

★ 인천상정고 · 인재고 · 인천외고방송반 - 이용자 팟캐스트 제작 지원

권승교, 김대환, 김종윤, 김준, 박병운, 박수빈, 이민성, 이상민, 이성민, 전진우, 조영서

★ 인천가족공원사업단 - 녹색공원과 옥상공원 수목관리

개진희소장, 목대준, 박영균, 이강호, 전우관, 정운길

★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 이용자 운동 및 여가 지원

이선교수, 강호기, 꽈도훈, 김도형, 박차현, 손찬영, 윤현서, 임동우, 임홍기, 장주화, 장석현, 전현채, 조경현, 주현일, 천광민, 홍승기, 황덕영

★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 시설 및 생활동 환경정리 지원

김정식, 김재희, 김태환, 박인기, 변성일, 이진원, 임관순, 정국보, 최다정, 한주형, 황성국

★ 제3군수지원사령부 10보급대 · 이용자 긴장 지원

김재준소위, 구규모, 김준우, 남경범, 유현재, 이정민, 조진환

★ 태양봉사단 - 이용자 종식지원

이명식(대표), 김춘숙, 오현주,

★ 해바라기 봉사단 - 시설 환경정리

김성숙, 김영천, 김해봉, 이구연, 이종현, 전재필, 홍성진, 홍지예

★ DK도시개발 - 시설 및 생활동 환경정리

김나경, 김미성, 김석현, 김순철, 김재운, 김지우, 김용호, 김정태, 김현민, 김형남, 김호중, 김효중, 배성철, 성기준, 이기웅, 이나라, 이대진, 이승은, 이재봉, 이정원, 이진주, 이태현, 임진우, 정해운, 최영균, 최은희, 황민선

★ 개인봉사자 · 시설 및 생활동 환경정리, 이용자 정서지원 등

가인선, 강기철, 강민재, 강지현, 김나영, 김민서, 김수진, 김서연, 김시언, 김연수, 김우석, 김태훈, 노현우, 박 준, 방지현, 성하연, 손민진, 심아영, 이권일, 이상만, 이상민, 이상진, 이진영, 정예진, 조재현, 진준녀, 최단비

-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물품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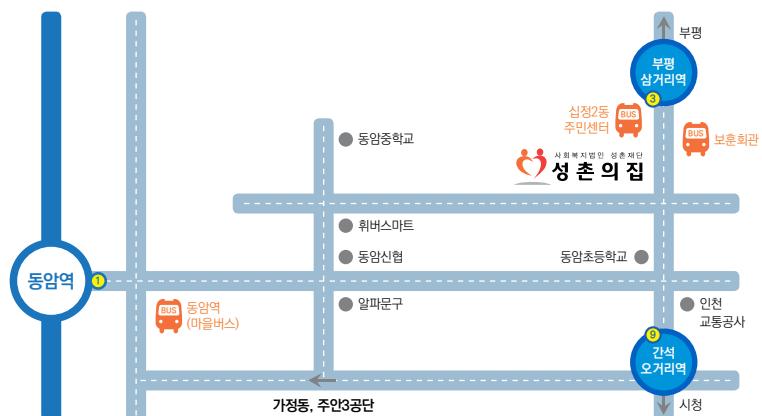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의료용품 (의약품 및 헬체어, 보조기구)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 민 은 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1
농 협 은 행 301-0072-5929-41
우 체 국 100115-01-000694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심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별마을이야기 2019년 첫 번째 호 (통권26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김기철, 유성우, 장순, 장연희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심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해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